

色彩調和와 配色

朴 弘 - 건축가 · 中央大 교수

●인테리어 디자인과 色彩

오늘날 우리는 色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컬러時代가 왔다는 말과 같이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도 色이 넘치고 있다. 그래서인지 色彩를 통한 새로운 생활이나 一般商品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색채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중대한 것이며 또 그것을 가늠하는 우리들의 감각은 부지불식간에 日常生活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된다.

생활을 즐겁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장래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새로운 생활패턴을 만드는 방법이 신문·잡지·텔레비전 등의 媒体를 통하여 항상 우리들의 눈에 비쳐지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연구대상이 되는 「테마」가 광범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色彩分野는 특히 중요하게 다루지는 領域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色彩를 살리는 방법여하에 따라 室内感覺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色의 지각과 반응에 대한 인간의 原初本能에 근거하는 심리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근래 市場엘 나가보면 구입코자 하는 商品의 色彩가 비교적 다양하게 市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은 色彩에 대한 세련미가 없는 것을 많이 보지만 商品의 色彩가 풍부하고 다양하게 될수록 우리들은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色彩의 研究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울러 色의 적절한 配分과 調和는 분위기를 조절하고 建築的인 결합을 시정하며 幻想을 창조하는 마력을 지닌 대신 이의 적절치 못한 구사는 粗

惡한 空間을 연출하고 마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결국 色이란 그 調和를 피하기 위해 적절히 調節되어야 하며 그나름의 文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 품위있고 생산적인 색채조화의 이론을 검토하기로 하자.

●色의 意味와 發生

인테리어 디자인의 視覺的 効果는 일차적으로 色彩에 의해 지각된다. 色彩란 빛과 表面色과의 상호작용으로서 얻어지는 것이며 색채에 대한 감각은 심리적인 반응에서 행동적인 반응으로 연결되어 진다.

色이란 물리적으로는 스펙트럼(Spectrum)에 의한 光(Light)으로 해석되지만 화학적으로는 顔料나 染料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생리학적으로는 視覺을 통해 大惱에 이르는 色의 자각이라는 神經系統의 光化學的인 활동으로서 色盲·殘傷의 현상 등이 이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색채란 인간의 肉眼에 대해서 어떤 물체에서 반사한 빛의 性状인 것이다. 그러므로 색이란 빛의 속성이며 시각으로 잡을 수 있는 스펙트럼 중의 빛의 파장에 따라 좌우된다. 예컨대 빨간 물체는 빛으로 감지되는 긴 파장만을 반사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 고로 색채란 실제로 반사된 빛과 흡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다.

色에 대한 語源은 Colour(英), Color(美·스페인), Colore(伊), Couleur(佛), Colorido(포르투갈), Kleur(和)등 모두 라틴語의 Color에서 나왔고 모두 色·顔色·外觀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5色이 영롱한 빛·색깔·안색·女色·景色 등 人體의

외관 또는 自然景觀과 女性에 관련되는 色慾·色心·色酒家·色郷 등으로 쓰였다.

佛經에서는 「色即是空」의 뜻으로 물리적 현상과 색채·色情 등 五蘊, 즉 우주의 5元素인 色·愛·想·行識의 하나로서 색은 有形의 萬物이고 인연의 소생이며 「実存」이 아닌 「空」이라는 추상적 철학어구로 되어 있다.

색채는 우리의 視感覺의 성분 또는 요소로서 우리가 보는 형태나 모양 등 물체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 色彩라는 말은 그 語義가 불확실하게 쓰이기 때문에 色感覺이나 색채를 생기기 때문에 色感覺이나 색채를 생기기 하는 재료와 과정에 대해서도 남용되고 있다.

●色의 種類와 屬性

色에 대한 연구를 하는 學問을 色彩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色名이나 記号化가 정립되지 못했으나 가까운 日本만 해도 실용화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색이란 너무 이치적이고 계량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색이 지녀야 할 감각적이고 생생한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류나 속성 등에 대하여 언급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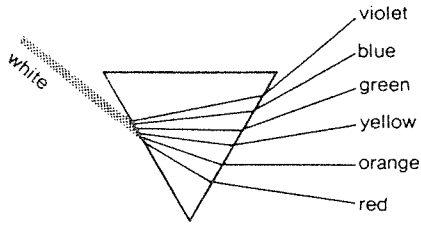
1) 無彩色과 有彩色.

㉠ 無彩色 - 白에서 黑色까지의 단계의 색을 일컫는 것으로 白과 黑으로 만들어진 灰色은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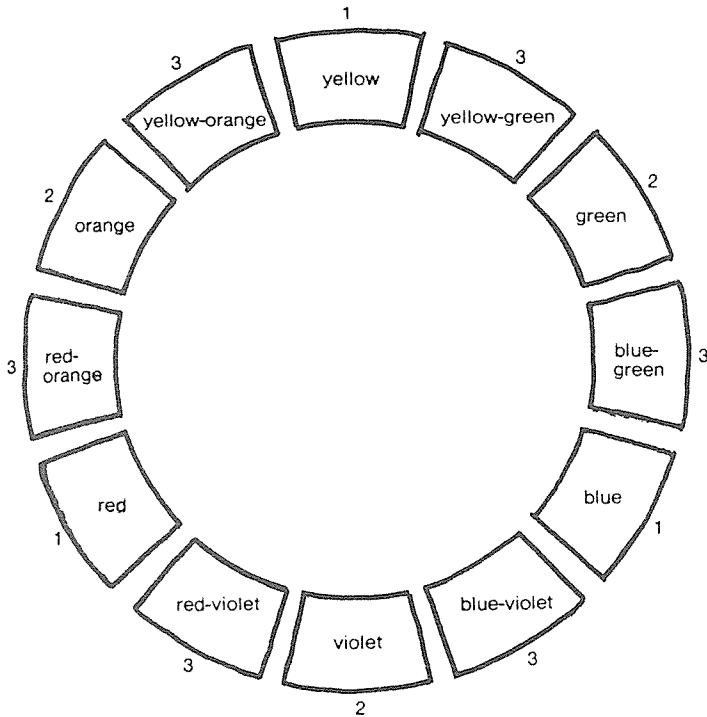
㉡ 有彩色 - 상기의 無彩色을 제외한 모든 색을 말한다.

2) 色의 3屬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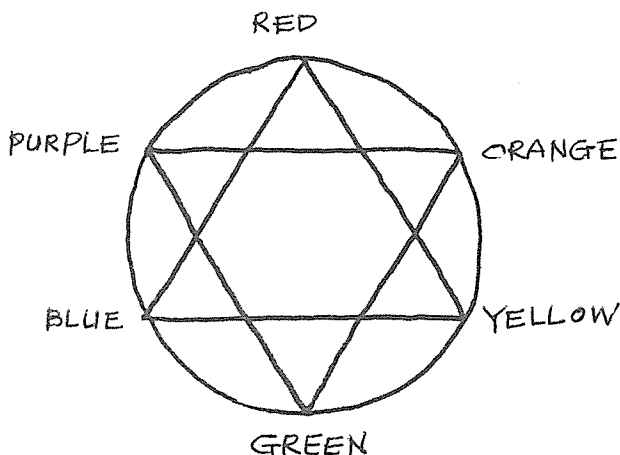
색의 효과에 대해 이해하려면 色의 原理에 대하여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圖-1〉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단색광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색띠를 나타낸다.



〈圖-2〉 색상환은 색상의 연속, 즉 1차색(1), 2차색(2), 3차색(3)을 나타낸다. 보색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이다.



〈圖-3〉 괴테의 色相環

그 상세함이란 色彩學에서 취급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色彩의 기본이 되는 屬性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즉, 色相·明度·彩度を 色의 三屬性이라 한다.

① 色相(Hue) - 일반적으로 色의 相違를 이렇게 부른다. 英國의 저명한 色彩學者인 먼셀(Munsell)은 赤(R)·黃(Y)·綠(G)·青(B)·紫(P)의 5色을 기준으로 하고 다시 그 중간에 5色을 더한 10色으로 色環을 만들었다. 그것을 다시 각각의 10色으로 나누어 100의 色相이라 한 것이다. 즉 색상이란 감각으로 구별되는 色의 屬性을 말하는 것이다.

② 明度(Value, Lightness) - 色의 밝음의 감각을 尺度化한 것으로서 色의 밝기의 단계를 이렇게 부른다. 먼셀은 이 明度を 白에서 黑까지 10단계로 나누고 가장 밝은 白을 1, 가장 어두운 黑을 10으로 하여 번호를 붙이고 있다. 이 明度は 有彩色에도 있다.

③ 彩度(Chroma) - 色의 순수하고 탁하거나 흐린 정도의 差를 말한다. 色은 일반적으로 섞으면 섞을수록 이 彩度が 낮게 된다. 전술한 먼셀의 色環의 色은 채도가 가장 높은 色이며 이것을 「純色」(Pure Color)이라 부른다. 純色에 白과 黑을 섞으면 「清色」이 되고, 그중 白을 섞은 것을 「明清色」, 黑을 섞은 것을 「暗清色」이라 부른다. 이 純色이나 清色에 灰色의 無彩色을 加한 色을 濁色이라 한다. 참고로 이러한 色이 갖고 있는 3屬性의 각각 가운데의 色채를 대비시켜 다음과 같은 말을 함을 알아두자.

● 明度對比 - 밝은 灰色을 하얀 종이 위에 놓으면 한층 더 검게 보이는 것과 같이 밝기의 對比로 色彩가 달리 보임을 알 수 있다.

● 色相對比 - 같은 赤紫라도 赤의 안에서는 紫가 강하게 보이고 紫의 위에 놓으면 赤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 彩度對比 - 한색의 彩도가 다른 色의 채도의 高低로 높게 보이든가 낮게 보이든가 하는 것이다.

● 補色 - 먼셀의 色環에서 對角線에 해당하는 2色을 補色(Complementary Color)이라 한다.

● 配色 - 아름다운 色의 調和를

이룬다는 의미의 말이다.

●寒暖对比 - 각자의 색이 지니는 寒色과 暖色の 대비로 建築 또는 室内的 색채계획과 중요한 관계가 있으며 遠近을 암시하는 要素도 지니고 있다.

●色の 調和原理

配色의 결과를 논할 때는 당연히 調和와 不調和의 이론이 나오게 된다.

Ostwald의 Color Harmony Manual 引用에 의하면 色相·明度·彩度の 三要素와 그것들의 面積의 Balance를 분석하여 생각하고 어떠한 조화의 질서가 보이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색의 조화는 同一色相에 의한 調和, 類似色相에 의한 조화, 对比色相에 의한 조화 등 3가지 카테고리 로 大別되지만 좋은 配色은 각기 어떤 타입에 있어서도 애매함이 없다는 것이다.

造形의 아름다움은 形態와 色彩와 材料가 종합되어서 이뤄지는 것이며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色彩 効果이다. 色彩의 調和란 두가지 이상의 색이 배색되어 好·不好의 감정 效果를 주는 것이다.

색채조화를 피하는데 있어서 共通되는 原理를 尹一柱교수는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秩序의 原理(Principle of Order)

색채의 조화는 의식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질서있는 계획에 따라 선택된 색채들에서 생긴다.

●非模糊性的 原理(Principle of Unambig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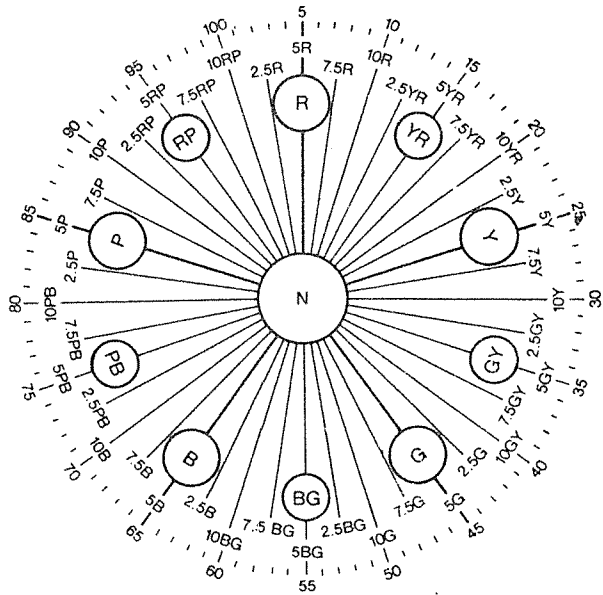
색채의 조화는 두색 이상의 배색의 선택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없는 명료한 배색에서만 얻어진다.

●同類의 原理(Principle of Familia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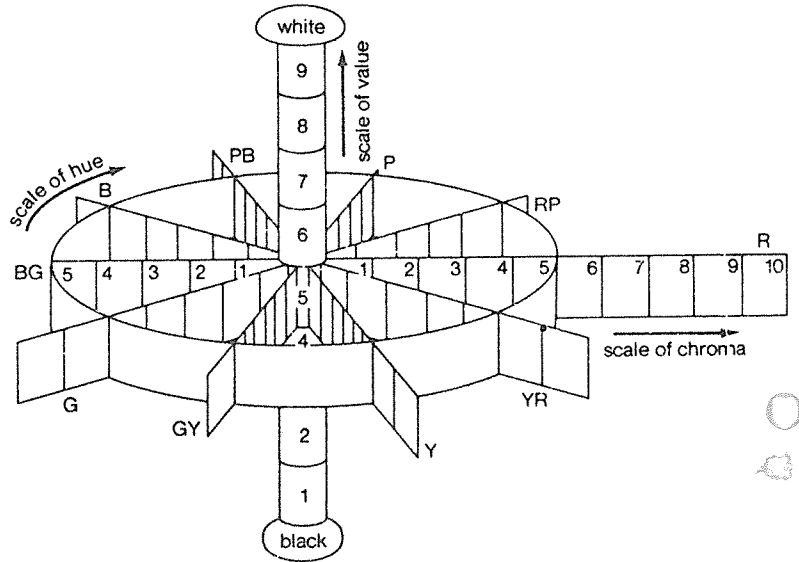
가장 가까운 색채거리의 배색은 보는 사람에게 가장 친근감을 주며 조화를 느끼게 한다.

●類似的 原理(Principle of Simila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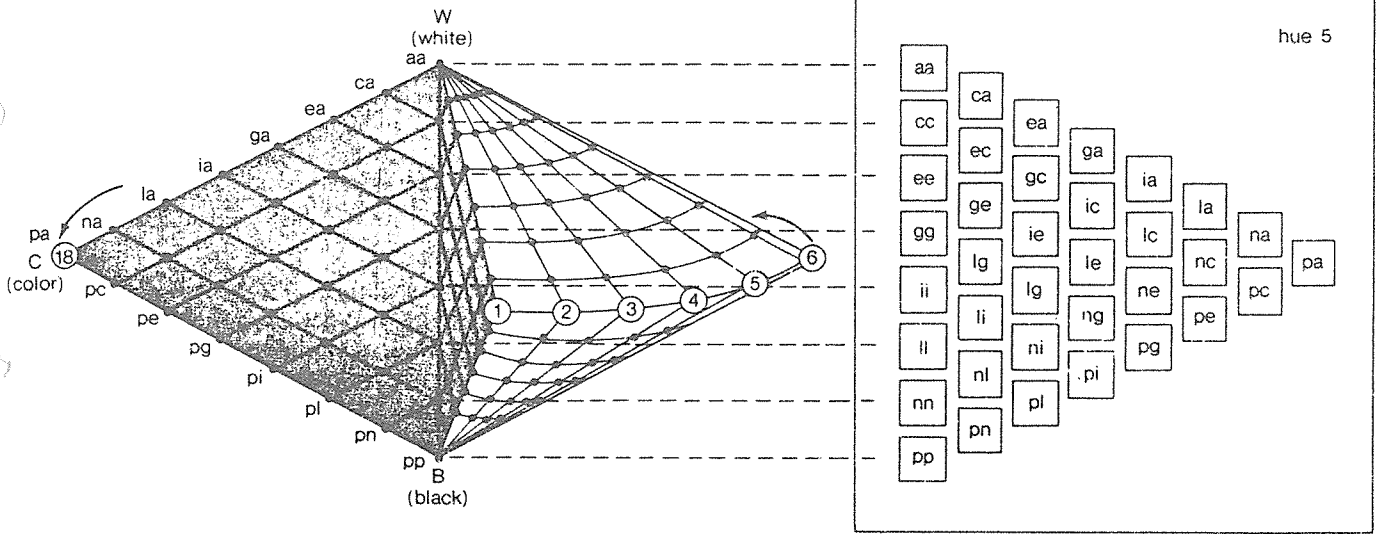
배색된 색들이 서로 공통되는 상태와 속성을 가질 때 그 色彩群은 조화된다.



〈圖-4〉 Munsell의 체계는 스펙트럼(分光)을 5개의 원색과 5개의 중간색으로 나누고 있다. 또 이 10가지 색상은 각기 10등분으로 세분화 되어 원의 외주부에 보이는 100가지 색을 이룬다.



〈圖-5〉 색의 3차원(3屬性)이란 色相, 明度, 彩度の 관계를 말한다. 원형의 띠는 圖-4와 같이 색상을 나타내고, 중앙의 수직축은 黑에서 白에 이르는 명암의 9단계를 나타낸다. 放射狀의 면은 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앙 중심부에서 원의 외주에 이르기까지 분포한다.



(圖-6) Ostwald 색체계는 複円錐體로 설명되어 지며 잘라진 斷面이 내부의 관계를 보여 준다. 색상은 적도 주변에서 맑아지고, 흐린채도의 중심축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탁해진다. 오른쪽의 삼각도표는 흑백의 중심축으로부터 외주에 이르기까지 밀이 가장 어둡고 위가 가장 밝은 28단계의 한 색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对比의 原理 (Principle of Contrast)

배색된 색채들의 상태와 속성이 서로 반대되면서도 모호한 점이 없을 때 조화된다.

위에 열거한 원리들은 각기 色相·明度·彩度별로 해당되는 것이나 이들의 속성이 적절히 결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色彩를 조화함에 있어서 同一色이나 類似色으로 함이 무난하지만 변화가 적고 매력을 잃는 수가 있으므로 明도와 彩度差를 두어 对比效果를 주는 것이 좋다. 对比調和에서는 純色끼리의 배색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明度나 彩度 중 어느 하나를 높이고 낮춰 조화시키는 것이 좋다 하겠다. 한편 無彩色은 거의 모든 색과 조화되는고로 그것을 有彩色과 적당히 配色시키는 것이 조화 효과를 한층 높이는 결과가 된다.

●色彩調節上的 考慮事項

색채는 우리들이 의식하던 않든간에 정서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이며 발광하는 에너지라고 요하네스 이텐은 말하고 있다. 그의 말과 人間의 심리적 작용으로 볼 때 居住環境의 色彩는 거주인의 정서생활을 좌우하거나 또

는 거주인의 성격이나 교양정도를 나타내는 尺度가 되기도 한다.

인간은 色에 대하여 어느 動物보다도 매우 민감하여 物理的·生理的 자극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색채조절의 良否는 건전한 心身의 유지, 作業能率의 증진, 위험방지 등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색채조절상의 주의사항으로 일곱가지를 소개한다.

① 室의 用途에 따른 色彩選擇
室은 용도에 따라 매우 활동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정적인 것이 있다. 居室이나 식사실 처럼 가족원들이 모이는 방과 침실·서재 등의 개인적인 방도 있다.

과거와 같은 韓屋에서는 방마다의 독립성(Privacy)이 유지되지 못했고 사용방법도 분명치 못했던 시대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방 나름의 용도와 성격이 분명하게 되면 각방에 따른 色彩計劃이 필요하게 된다.

② 室과 室間의 調和考慮
하나하나의 방이 아무리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도 주거전체로서의 색채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되고 만다.

한 室內에서의 색채가 아름답게 조화하고 있는 것처럼 個性을 가진 각

실이 상호간에 아름답게 조화되므로서 전체적인 색채조절이 이뤄진 것이라 생각된다.

바닥에서 바닥으로의 연결, 벽에서 벽, 벽과 도어, 도어와 家具라 하듯이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갖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③ 室의 밝기나 照明을 고려한 色彩計劃

방의 밝기가 照明의 相違에서는 같은 색채가 전혀 다른 색으로 오인될 만큼 다르게 보이는 수가 있다.

南向의 밝은 방에서는 안정된 色調가 좋으나 北向의 어두운 방에서는 다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채를 선택함이 좋을 것이다. 또한 형광등이나 보통전구(白熱燈)이냐에 따라 나타나는 색채의 느낌은 전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④ 材料의 自然色調를 고려한 色彩計劃

너무 人工的인 색채 속에서는 곧 실증을 느끼고 지루하게 된다. 고로 색채계획은 素材가 갖고 있는 材質色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료에 따라 같은 색채의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⑤ 色面의 크기를 고려한 色의 選定

색채를 결정할 때 대개는 작은 컬러 샘플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큰 면에 칠해 지거나 확대됨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색채란 色面이 커지면 진한색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에 벽이나 천정 등은 컬러 샘플보다 다소 엷은 색으로 선택하는 편이 무난하다.

⑥ 季節에 따른 色彩選擇의 고려

방의 색채를 계절에 따라 변화시키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 커튼이나 깔개를 교환하는 것도 좋으며 벽지를 새로 바르거나 벽을 다시 칠하는 것도 좋다. 또 의자의 쿠션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방 분위기를 달라지게 된다.

⑦ 主調色の 決定과 色數의 制限

작은 방에서 여러가지 색을 쓰면 작은방이 더 작게 보이고 방 분위기가 혼란스럽게 된다. 寒色이든 暖色이든 主調로 되는 색을 결정하여 그 濃淡으로 配色하고 반대색으로 액센트를 주게 되면 비교적 무난하게 配色이 된다.

● 配色과 感情效果

인테리어의 색채는 거주인의 개성에 따라 다르지만 그 실내가 갖는 사용목적에 따라서도 당연히 다르게 된다. 또 事務所나 호텔과 같이 大衆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실내는 개인주택과는 전혀 다른 社會性 있는 감각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같이 실내의 配色은 여러가지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색의 지각과 그 반응효과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原稿枚數의 한계를 지키는 일이 된다.

색채는 오랜 옛적부터 인간생활 속에서 정신적인 면(종교·신앙)은 물론이고 居處·衣類·食品·生活用器具 등의 실용적인 면에도 사용되었다. 그림·조각·공예 등 미술적 영역에서도 그 형태들과 같이 중요한 요소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그 비중은 점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색채와는 인연이 가장 멀다고 하는 純粹科學이나 그 과학의 응용인 工學分野에 까지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産業部門에서 색채처리의 良否는 國家經濟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물론 색채는 時代와, 地域과 國家

〈表-1〉 각 시대별 색채사용

시대별	색채별	
선사시대	赤色, 黃褐色	
고대	EGYPT	2.5Y 8/8, 7.5R 4/10, 2.5BG 5/6, 2.5Y 6/4, 10G 5/2
	MESOPOTAMIA	백색, 황색, 청색, 연지색, 흑색
	GREECE	백색, 2.5Y 9/6, 5 R 4/12-14, 5 B 6/4
	ROME	10YR 6/2, 10RP 8/4, 5 GY 6/2, 10R 4/6, 5 Y 6/2, 10RP 5/4, 5 BG 6/6, 5/4
중세	초기CHRIST	5 YR 6.5/4, 10R 4/6, 7.5YR 5/8
	BYZANTINE	10YR 6/5, 7.5Y 7/2, 7.5Y 5/2, 4 Y 7/4, 10YR 4/3, 10YR 7/3, 2.5Y 8/6+10BG 4/3, N9.5+2.5YR 3/2, 금색+2.5GY 6/4, 10R 5/6+7.5GY 5.5/4
	ROMANESQUE	7.5P 5/2, 7/5R 4/10, 2.5GY 4/2, 10R 3/6, 7.5P 4/2, 2.5Y 7/6, 2.5Y 6/6(금색)
	GOTHIC	금색, 흑색(NI·O), 7.5R 5/10, 2.5PB 3/2, 5 GY 4/4
근대	RENAISSANCE	2.5YR 8/3, 7.5BG 7/2, 5 BG 3/4, 5 R 3/10, 10R 3/4, 5 RP 4/2
	BAROQUE	흑색(NI·O)+5R 4/2, 담황색+감색
	ROCOCO	2.5Y 9/4+은색, 10B 7/2+금색
	고전시대 낭만주의시대	백색, 금색, 주색, 흑색 2.5PB 6/6, 2.5Y 9/4, 5 PB 7/2, 10PB 3/10, 10R 8/2, 10YR 6/6 (北) 10GY 5/4, 7.5PB 4/8, 10RP 6/2, 10YR 8/4, N 7

* 星野昌一, 「色彩調和と配色」(東京:丸善株式会社)昭和50年, PP. 106~110

와 民族, 또는 風土條件 등에 따라 느끼는 감정과 효과도 달랐으며 사용용색이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表-1 참조〉

原始時代 인류가 처음 색을 사용한 흔적은 약 20만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것은 홍하시대 유물로 인간의 굴반에 칠한 적색 또는 적토에 이장한 유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색에 대한 인간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고, B. C. 2만여년 전 불란서의 Lascoux나 스페인의 Altamira 동굴벽화에 적갈색·황토색·흑백으로 명암이 혼색된 아름다운 색조를 사용했음은 그 당시의 재료색의 주종이 그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색채는 色素가 갖는 발색의 한계를 넘어 색의 예술과 그 시간성까지 가늠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문제는 색의 합성이나 도출과정이 아니라 색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반응이나 감정효과에 따른 적절한 배색이 과제인 것이다. Ray Fau Ikner가 논술하는 색의 屬性에 따른 감정효과를 정리하면 〈表-2〉와 같다.

시대에 따라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색에 대한 기호도 바뀌고 있다.

옛날 같으면 터부시했던 原色調의 액센트가 가구나 액세서리는 물론 벽면 등에 과감하게 도입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부지불식간에 변해버린 인간의 심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 色の 選擇과 計劃

이상에서 기술한 것은 색에 대한 일반론적인 전개였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있어서 색이 갖는 의미는 色彩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하게 감정을 표현해 내는 장점을 이용하려는데 있다.

우리가 색채를 계획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개인이나 가족의 취미, 또는 개성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生理·心理醫學을 거쳐 審美性까지 결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그 색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적조건—빛의 반사, 질감의 종류 등—이 문제가 되며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따른 적절한 색채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表-2〉 색의 속성(H.V.C)에 따른 감정효과

감정	색상	명도	채도
Feeling	난색: 자극적 한색: 침착	밝은 명도: 기분을 북돋움 어두운 명도: 휴식적이나 우울함으로 변함.	높은 채도: 기운을 북돋움 강하다. 낮은 채도: 평화적
Attention	난색은 한색보다 주의를 끈다.	극적인 명암은 눈의 주의를 끄는 경향이 있으며 대비가 큰것은 더욱 효과적이다.	높은 채도일수록 주의를 끈다.
Size	난색: 물체의 크기를 증대 벽에서 용하면 방의 크기를 축소시킴.	밝은 명도는 방의 크기를 증대. 배경색에 강한 대비는 효과적임.	높은 채도는 물체의 크기를 증대시킴. 벽에 높은 채도가 사용되면 방의 크기가 축소됨.
Distance	난색: 물체를 진출시킴. 한색: 물체를 후퇴시킴.	밝은 명도는 물체를 후퇴시키고 어두운 명도는 진출시킴. 명암에 있어서 극적대비는 진출효과가 있음.	높은 채도는 뚜렷하게 거리를 단축시킨다.
Out-Line	난색은 한색보다 윤곽을 가볍고 부드럽게 해준다. 대비되는 색은 유사색의 조화보다 윤곽이 더욱 선명하다.	명암의 대비는 윤곽을 강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채도의 대비는 윤곽을 강조시킨다.

*) Faulkner, Ray O Sarah, Inside Today's Home,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5 P. 134)

색채에 대한 영역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다양한 학문이라서 어느 일면에서 다루기는 힘든 것이다. 다만 필자의 아둔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아는 것의 유한성으로 인해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색채조화와 그 방안에 대한 것은 전술한 調和原理와 調節上の考慮事項을 根幹으로 생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졸고를 줄인다.

83年度 會員設計作品展 應募公告

1983年度 會員設計作品展示會가 오는 8월 8일부터 55일간 全國 7大都市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建設部長官賞 등 協會大賞作品選定을 겸한 作品展으로 이번 展示會에 應募하는 作品만이 후보작품이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應募要領을 公告하오니 會員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
모
요
령

- 대상작품
 - 1980년부터 1983년 7월 현재까지 준공된 작품(단, 본회가 주최한 지난 전시회에 출품되지 아니한 작품)
- 제작방법
 - 1) 판넬크기 / 90cm × 90cm (가로 × 세로)
 - 2) 판넬제작요령
 - (1) 판넬에 기재한 내용이 순회 운송기간 중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예: 유리·스치로폴등 외부충격에 약한 재료는 사용을 피할 것)
 - (2) 전시중 벽면에 쉽게 걸 수 있도록 판넬후면에
- 응모마감
 - 중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판넬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진·도면·설계자료
- (원고지 2매 정도) 인물사진등을 별도로 제출할 것. (단, 작품명과 사무소명, 설계자명은 한글 및 영문으로 표기할 것)
 - 작품집자료: 7월 9일
 - 판넬: 7월 20일까지
- 기 타
 - 1) 출품된 작품만이 수상 후보작품이 된다.
 - 2) 포상내용 / 대상(건설부장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등 (논문부문 별도)
- 제출·문의처
 - 협회 출판사업부 (723-9491~2)